

왕이 되지 못한 세자들

이 순 구 (서울시 문화재위원)

-
1. 머리말
 2. 의경세자와 인수대비
 3.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4. 효명세자와 조대비
 5. 마치며
-

1. 머리말

조선에서 세자는 현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으로 2인자의 위치에 있다. 다음 왕으로 지명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왕 다음으로 귀하고 높은 존재이지만, 다음 왕이 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행동이 쉽지 않기도 하다. 권력의 최고와 그 다음은 미묘한 긴장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자는 대개 현 왕의 장자로 임명되지만 조선에서 실제로 장자로서 세자가 되고 왕위까지 오른 사람은 많지 않다.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가 세자가 된 경우, 첫째가 세자가 됐다가 사망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 세자 자리에서 내려온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적장자로서 세자가 되고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왕위까지 오른 경우는 문종, 단종, 인종, 명종, 현종, 숙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종이나 단종, 인종 등은 단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자 자리를 잘 유지하여 왕위에 오르고 이후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경우는 명종, 현종, 숙종에 한정되어 보인다. 이를 봐도 세자라는 위치가 갖는 중요함에 비해 그 의미가 제대로 실현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자가 되었으나 왕이 되지 못했던 세자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일단 모두 세자로 있으면서 사망한 경우인데, 그 이후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임금으로 즉위하여 추존을 통해 왕이 된 사람을 살펴보겠다. 이들은 세자로 죽었지만 어떻게 나중에 다시 왕으로 추존이 될 수 있었을까? 부인 즉, 세자빈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소현세자는 세자로 죽었지만 끝내 추존되지는 못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차이는 의미심장하다.

2. 의경세자와 인수대비

의경세자(1438-1457)는 어떤 사람인가? 의경세자는 세조의 장자로서 세조가 대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왕자의 아들로써 왕족일 뿐이었다. 그러나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18세의 나이로 세자로 봉해졌다.

왕세자의 휘는 이장(李璋)이고 자는 원명(原明)인데, 세종 21년(1439) 무오 9월 15일 병신에 나시니, 이는 정통(正統) 3년이다. 옛 사례에 왕자의 부인으로서 장차 분만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대궐 밖 제택으로 나갔는데, 자성(慈聖) 왕비께서는 특히 양궁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자를 금중에서 낳으셨다. 체격이 준수 숙성하고 용모 또한 단아하여 세종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등 다른 왕손과 달리 하였다.

(세조실록 3년 11월 24일)

의경세자가 죽고 난 다음 써진 글의 일부이다. 본래 아버지 수양대군이 왕자이므로 궁궐 밖에서 태어나야 했으나 세종과 소헌왕후의 사랑이 커서 궁궐에 머물러 있다가 의경세자를 낳았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의경세자는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자의 아들 도원군일 뿐이었다.

을해년(1455) 윤6월 을묘에 전하께서 즉위하시니, 군신들이 일찍 세자를 세워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도록 청하였다. 이에 낳을 택하여 의식을 갖추어서 왕세자로 책봉하고, 사신을 중국 조정에 보내어 책명을 청하였다.

(세조실록 3년 11월 24일)

근정전에 임어(臨御)하여 원자 이장을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고, 한씨를 왕세자빈으로 삼았다. 그 세자로 봉하는 교서는 이러하였다.

“예로부터 성왕이 모두 저이(儲貳)를 세웠으니, 대개 장차 신기를 부탁하여 종조를 받들려는 것이다. …아! 너 원자 이장은 그 몸이 적자로 태어났으니, 춘궁에 있어 합당하므로 이에 너에게 명하여 왕세자로 삼으니, …길이 큰 기업을 공고히 하기를 바라니 어찌 신중히 하지 않겠느냐?”

(세조실록 1년 7월 26일)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도원군은 세자로 책봉됐다. 이때가 의경세자가 18세 때이고 인수대비와의 사이에 월산대군(1454-1488)과 명숙공주(1455-1482)가 있었다. 1453년에 혼인했으니 혼인한 지는 2년만이다. 이때 인수대비는 정빈으로 봉해졌다. 인수대비가 부인이었다는 것은 의경세자에게 유리한 점이였다.

“아! 너 한씨는 원훈의 번성한 세족이며, 예의로 이름난 가문으로서 일찍 총사(冢嗣)의 배필이 되니, 유순하고 온혜하였다. 이에 춘궁을 세움에 즈음하여 마땅히 너의 위호도 바르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하여 왕세자빈으로 삼으니…더욱 아름다운 경륜에 힘써야 할 것이니, 공경하라.”

의경세자는 체격이 준수하고 숙성하며 용모가 단아했고 의심나면 반드시 묻고, 물으면 반드시 살폈다고 한다. 인물도 좋고 영민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준수한 세자가 책봉된 지 2년 4개월 만에 사망하고 만 것이다.

도원군에서 세자가 된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세자가 되고 나서 불과 2년 여만에 죽고 말았다는 것은 사실 더 드라마틱하다. 이제부터 관건은 남겨진 세자빈 정빈 한씨와 갓 태어난 성종 포함 그 자손들이었다.

세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동생인 예종에게도 돌아갔다. 정빈 한씨 즉, 인수대비는 궁궐을 나와야했다. 세자 외의 왕자 가족은 궁궐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경 등이 세자궁을 너무 사치하게 지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하여 즉시 명하여 고치게 하였는데, 경 등은 어찌 내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감히 더욱 사치하게 지었는가? 궁궐은 검소함을 숭상함이 마땅하거늘, 더구나 빈궁 같은 것이라?”

(세조실록 9년 4월 18일)

세조는 며느리 정빈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었다. 이것이 정빈궁이다. 기록에는 정빈궁을 너무 사치스럽게 지었다고 나무라고 있지만 본심은 죽은 세자의 가족을 잘 보살피려는 데에 있음이 읽힌다.

궁궐을 나온 후 인수대비는 이른바 청상과부 생활을 해야 했다. 1459년 이후 1470년 다시 입궐하기 전까지 10여년의 세월을 궁 밖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시기에 유명한 『내훈』을 지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기 인수대비는 『내훈』만을 짓는데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지는 않다. 시동생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남편은 없지만, 세자빈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했고, 왕실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왕실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시어머니 정희왕후로부터 ‘폭빈(暴嬪)’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보아 카리스마도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시아버지 세조와 간경도감을 통해 불경을 번역하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내훈』을 지은 것에서 보듯이 본래 학식이 있었고, 유불을 가리지 않았다. 정희왕후가 성종의 수렴청정을 인수대비가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 것도 인수대비의 학식을 높이 산 것이다.

이러한 인수대비의 능력은 의경세자의 사후에도 계통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원자[제안대군]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산군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마는 세조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게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主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8일)

예종이 죽고 나서 후계자 지명을 요구하는 신하들에게 정희왕후가 한 말이다. 여기서 상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왕위를 잇는다는 것을 뜻한다. 인수대비의 둘째 아들 자산군 즉, 성종이 왕으로 지목 받은 것이다. 물론 예종을 잇는 것이 됐지만, 후에 성종이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한다. 그리고 인수대비는 소혜왕후가 되었다.

의경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요절했지만, 그에게 인수대비라는 부인이 있었던 것은 그의 자손이 왕이 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세자에게 남겨진 가족, 특히 세자빈이 누구이냐는 그 후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다.

3.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도세자(1735-1762)와 영조(1694-1776)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혜경궁 홍씨(1735-1815)는 태어난 지 백 일 때부터 저승전(儲承殿)에서 나인들 손에 큰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4, 5살 때까지는 그래도 영조가 자주 찾았으나 그 이후에는 같이 있는 상궁들이 싫어 자주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이 사도세자는 상궁과 병기 놀이를 하는 등 공부를 등한시켰다고 한다.

영조와 사도세자는 성격이 몹시 달랐다. 특히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어려워 응대를 재빠르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밖에서 정사를 보시고 들어오실 때에 입으신 의대 차림으로 길에 오셔서 동궁에게 “밥 먹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경모궁이 대답을 하면 그 즉시 귀를 씻으셨다. 또 씻으신 물을 화협옹주가 있는 집 창문으로 버렸는데…
“하하, 우리 남매는 씻는 자비로구나” 하며 서로 웃었다. (한중록 2권)

영조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는 얘기이다. 화평옹주나 화완옹주는 예뻐했지만, 화협과 세도세자는 씻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다.

정사를 맡긴 후에는 “저리 한 일은 이리하지 않았다고 꾸중하시고, 이리

한 일은 저리하지 않았다고 꾸중하셨다” 고 하니 사도세자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염려했다.

화평옹주를 잃은 것이 영조한테는 큰 슬픔이었다. 혜경궁 홍씨는 화평옹주만 살아있었어도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경궁이 첫 아들 의소를 낳았을 때 처음에 시아버지 영조는 화평옹주가 출산하다 죽었다는 이유로 반가워하지 않았다. 네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의소가 어깨에 푸른 점이 있고 배에 붉은 점이 있다고 화평옹주 환생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의소를 태어난 지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아 잃고 말았다.

다행히 그로부터 몇 달 후 혜경궁은 정조(1752-1800)를 낳았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연달아 죽고 문녀(소의 문씨)라는 후궁을 두면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더 나빠졌다. 1753년 이후 “격화와 병환이 점점 더하여 내관을 매질하기가 그때부터 심했다” 는 것이다. 그리고 1757년부터는 의대병이 발병했고, 그 해 6월부터 내인을 여럿 죽이기 시작했다.

“제 마음에 울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을 죽여야 마음이 낫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였느냐?” “마마께서 사랑해주지 아니하시기에 서글프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인원왕후전에 있던 침방 나인 빙애(氷愛, 경빈 박씨)로 인해 아버지와 더욱 대립, 급기야 우물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

1759년 3월에는 정조가 세손으로 책봉되었다. 영조의 세손에 대한 사랑은 극진했다. 세손에게 정사를 맡기겠다는 언질도 있었다.

나는 내관에게 시켜 사관이 써 오거든 그 연사를 고쳐서 보시게 하였다. 위급한 때면 내가 내관에게 친히 빼버리게 하고 이르고 또한 이 사연을

아버지께 알렸다.

“아버님 아무쪼록 세손을 평안하게 할 도리를 취하소서.”

온양 행차, 평안도 행차 등은 모두 궁궐을 아버지를 떠나있고 싶어 나온 행위로 보인다. 1761년 세손 삼간택 때는 옥관자¹⁾ 때문에 난리가 났다. 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보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1762년 5월 나경언의 고변 ‘사도세자의 10가지 잘못’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친어머니 영빈 이씨마저 사도세자의 죽음을 권하게 됐으니 말이다.

“차라리 세자의 몸이 없는 것이 옳다. 삼종 혈맥이 세손께 있으니 천만 번 사랑하여도 나라를 보전하기는 이 수밖엔 없다.”

(선희궁(영빈 이씨)의 말)

5월 13일 사도세자는 혜경궁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어젯밤의 소문이 더욱 무서우니 큰일일세, 일이 이리 된 후이니 내가 죽어서 모르거나, 살면 종사를 붙들어야 옳고, 또 세손을 구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살아서 빈궁을 다시 볼 줄을 모르겠노라”

이날이 바로 영조에게 불려가 뒤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일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

“자네는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을 데리고 오래 살려 하는 구려. 내가 오늘 나가 죽을 터이니 그를 꺼리어 세손의 휘항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심술을 알겠네.”

그러면서 휘항을 내주지 않는 혜경궁 홍씨에게 이제 자신이 아닌 세손 정

1) 조선시대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가 쓴 옥으로 만든 망건의 관자

조를 택한 것을 서운해 하고 있다. 이때 혜경궁은 세손의 휘향을 결국 내어준다. 그러나 내심 혜경궁 홍씨가 세손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불려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겪는다.

“뱃소주방의 쌀 담은 궤를 내라 합니다.”

“마마 아버지를 살려 주소서.”

“나가라.”

“궤에 들어가라.”

세손 정조의 만류에도 영조는 사도세자를 궤에 들어가게 했다.

“마마 처분이 이러하시니 죄인의 처자인 제가 편안히 대궐에 있기에 황송합니다. 또 세손을 저리 오래 밖에 두면 죄가 더 무거워질까 두렵습니다. 이제 본집으로 가겠습니다. 천은으로 세손을 보존하여 주소서.”

“목숨을 보존하여 세손을 보살피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 혜경궁 홍씨는 세손 정조를 데리고 본가로 나왔다. 죄인의 가족으로 궁에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영조는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집에 있으면서 혜경궁은 정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네 아버님의 아내로 이 지경이 되고 너는 네 아버지의 아들로 이 지경을 만났구나, 다만 스스로 살아 있는 목숨을 서러워할 뿐이지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겠느냐? 우리 모자가 이때에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성은이요, 우러러 의지하여 목숨을 삼는 것도 또한 성상의 뜻이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뜻은 임금님의 뜻을 이어받아 힘쓰고 가다듬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성은을 갚는 길이고, 또 네 아버지께는 효자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 더할 말이 없구나.”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세손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효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훗날을 생각한 포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혜경궁과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병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판단한 후에는 세손에게 뜻을 둔 것으로 보인다.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의대증과 살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훗날을 기약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자도 이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휘항(揮項)²⁾을 가져오지 않을 때 내가 죽을 줄 알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흥한 사람이라고 탓했던 것이다.

혜경궁과 홍봉한은 세손 정조를 왕위에 오를 사람으로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다. 혜경궁의 이러한 의도는 계속 된다. 7월에 장례를 치르고 8월에 영조가 선원전에 왔을 때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다 성은이옵니다.”

“네가 이러할 줄 생각지도 못했구나. 내가 너 보기를 어렵게 생각했더니 네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나, 아름답도다.”

이렇게 혜경궁은 영조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다. 원망하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로 마음이 언짢았던 영조는 며느리의 이러한 말에 적잖이 위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손을 경희궁으로 데려가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세손을 떠나 견딜 수 있겠느냐?”

“세손이 저를 떠나서 마음이 섭섭한 것은 작은 일이지만, 세손이 대조를 모시고 배우는 일은 큰일입니다.”

심지어는 세손을 경의궁으로 보내 제왕 수업을 받게까지 했다. 영조는 매우 흡족해하며 세손을 데려갔다. 세손도 혜경궁을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단호하게 돌이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2) 머리에 쓰는 방한모의 종류

“내려오면 위가 그림고 올라가면 어미가 그림다 하더이다. 환궁 후는 또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이리 올 것이니 데려 가십시오.”

“내가 데리고 가라?”

영조는 혜경궁한테 잠시 들렀다가 정조를 두고 가겠다고 떠났는데 혜경궁이 도로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반색을 하며 데려갔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서 혜경궁의 의도와 정치력이 돋보인다. 정조가 세손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내고 끝내 왕위에 오른 것은 혜경궁의 노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경궁은 ‘가효당(嘉孝堂)’이라는 현판을 받았고, 영조는 “내가 네 효심을 오늘날 갚아서 이것을 써 주노라.” 라고 하였다. 혜경궁의 노력은 제대로 효과를 보았고, 세손의 입지는 강화되었다.

4. 효명세자와 조대비

효명세자(1809~1830)는 순조(1790-1834)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순원왕후(1789-1857)이다. 왕과 왕비 사이의 아들로 그야말로 순수한 적장자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왕비의 적자 출생이 드물어지는 상황에서 효명세자의 출생은 경사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순탄한 탄생과 성장을 거쳐 4세에 왕세자로 책봉되고 11살 때 조만영의 딸과 혼인한다. 이가 훗날의 조대비(1808-1890)이다. 효명세자와 관련해서는 이 조대비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대표적인 세도가의 딸이었고 19세기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효명세자는 18세에 순조의 대리청정을 했는데, 이때의 정치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특히 인사권 행사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세력을 바꾸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역사에서 의미 깊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효명세자가 21세가 되던 해 각혈을 몇 번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병치레가 있었지만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아버지 순조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세자의 죽음은 왕실의 큰 손실이었다. 순조도 몇 년 후 사망했다.

다행히 효명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세자빈 조씨(훗날 조대비)와의 사이에 헌종(1827-1849)이 있었던 것이다. 순조 사망 후 헌종이 왕위에 올랐다. 다시 한 번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왕위가 간 것이다. 헌종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고 할머니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얼핏 보면 효명세자는 죽었어도 헌종으로 왕위가 이어져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조대비도 불만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대비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어머니가 됐어도 그다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조대비는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헌종이 왕위에 있는 동안 그다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것은 헌종이 죽고 난 후에 후계자를 정할 때도 나타났다. 헌종의 뒤를 이어 철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철종을 선택하고 특히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이 순원왕후였다. 그러니까 왕위가 조카뻘에 있다가 다시 삼촌 뻘에게로 간 것이다. 이것은 역시 순원왕후와 그 집안 즉 안동 김씨 집안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순조 계통은 이어지고 헌종 계통은 끊어진 것이다.

조대비는 속으로 이 상황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순원왕후 이후를 기다렸을 것이다.

“빨리 대왕대비의 분명한 전지를 내려 즉시 큰 계책을 정하시기를 천만 번 빌고 있습니다.”

“홍선군의 적자에서 둘째 아들 이명복으로 익종 대왕의 대통을 입승하기로 작정하였다.”

“언문 교서를 써서 내려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왕대비가 발 안에서 언문 교서 한 장을 내놓았다. 도승지 민치상이 받들어 보고, 여러 대신들이 한문으로 바꾸어 쓴 것을 대왕대비에게 읽어 아뢴 후 받들고 나와 반포하였다.

정원용이 아뢰기를,

“나라 형편이 이처럼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삼가 발 안에서 정색하신 것을 보니, 억만년 태산 반석과 같은 터전이 이로부터 비릇되었으므로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홍선군의 둘째 아들의 작호는 익성군(翼成君)으로 하비하라.”

(고종실록 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조대비는 홍선군의 둘째 아들을 익성군으로 삼고 왕위를 계승하게 한다. 조대비는 꽤 오래전부터 홍선군의 둘째 아들을 접찍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언문 교서로 후계자를 명명해 달라는 신하에게 그 자리에서 발을 걷고 교서를 내놓았을 만큼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철종이 자식 없이 죽으면 다음 후계자 지명권은 자신에게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조용히 준비해왔다. 그 사람이 홍선군의 둘째 아들인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의 인연이 있었다.

효명세자 장례 시 홍선군의 형제들이 장례 주관.

대전관(代奠官) 홍인 도정(興寅都正) 이최응

수묘관(守墓官) 흥완 도정 이시응

이시응은 이하응의 둘째 형, 이최응은 셋째 형

1834년 순조의 장례식

홍선군 대전관

이최응 수묘관

조대비와 홍선군 집안 재 조우

*홍선군 집안은 남연군이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의 양자가 됨으로써 가까운 종실이 됨

결국 효명세자로서는 두 명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5. 마치며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세자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 사후 그 세자가 왕으로 추존이 됐느냐 또 왕실에서 중심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세자의 부인 즉 세자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